

여수시, 산단 폐기물 집중점검 환경오염 선제대응

사고발생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이달부터 여수 산단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관리 실태' 집중점검에 나섰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산단 내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로 환경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처리기준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고시절

행정처분 개선내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 소방, 고압가스, 산업안전, 환경분야와 관련한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남도 등 5개 기관과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시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근절과 환경오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저소득층 아동 기프트카드 지원 광양시 옥곡면, 관내 20명 대상

광양시 옥곡면은 지난 21일 저소득 아동·청소년 20명에 기프트카드(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새학기 아동·청소년들이 희망을 꿈꾸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프트카드는 지난 1월 (재)한국항만재단(대표 임현대)에서 기탁한 200만원으로 구입한 것.

임현대 (재)한국항만재단 대표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치곤 옥곡면장은 "지역사회 나눔문화가 확산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목공예산업' 인력 전문화 앞장 장흥목공예협회

장흥목공예협회가 지역 목공예산업 활성화와 관련 인력 전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22일 장흥목공예협회에 따르면 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목공예협회는 분야별 특성을 살리고 전문인 양성을 위해 주제를 6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짜맞춤, 목선반, 우드버닝, 우드카빙, 스크롤쏘우, 서각 등 분과가 마련돼 월 2~4회 기량 향상을 위해 훈련하고 있다.

기술 전수와 연구를 통해 기본기부터 작품을 제작하는 수준까지 역량을 기르고 전시장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홍보·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가을에 있을 정기 전시회,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목공예콘테스트에 작품 출품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제작한 목공예 작품을 전시해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흥군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다.

위성은 장흥목공예협회장은 "분과별 활동성과는 전시회와 콘테스트, 말레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와 장흥목공예협회의 협력, 상생을 통한 목재산업 발전과 목공예 기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능 전수 및 장비 사용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20만원씩 구례사랑상품권

구례군은 17개 초·중·고등학교의 1학년 입학생 및 전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입학준비금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12월 '구례군 입학준비금 지원조례'가 제정돼 2023년 처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학교에서 배부해 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입학준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해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별도 안내에 따라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입학일 현재 구례군 전입자로 타 시·군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인당 20만원씩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순천 조곡동마중물보장협의체, 빨래방 운영 호응

순천시 조곡동마중물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외투, 이불 등을

순천시 제공

수거해 세탁하는 '향기나는 뽕송뽕송 빨래방' 사업을 추진했다.

여수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입장권 구매등 상생 협력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나섰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입장권 구입 등을 통해 인근 지자체간 상생 협력하고 관람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정원박람회 지원 TF를 구성해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입장권 구입과

홍보지원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달 말까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박람회 벤치마킹 등을 위해 3000매 가량을 사전구매해 배부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에서 2000매 가량을 구매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수산단 입주기업과 각종 사회단체들도 구매 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를 찾은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광종합 대책을 세우는 등 대규모 관광

객 맞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책은 △정원박람회 입장권 소지자 관광시설 할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음식·숙박업소 친절서비스 개선 △도심지 환경 정비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의 국제행사 등을 지원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다"며 "2026년 여수세계석박람회를 앞둔 상황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창구' 개설

알 권리 보장·재산권 적극 보호

장흥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3월 말부터 20일간, 4월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이 정해져 있었다.

봄·가을과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토지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열린창구를 개설, 운영 중이다.

법정기간 내 제출된 의견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법정기간 외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연도 지가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다음 연도 법정기간 내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보성군이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를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환자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종합 치매 관리에 나서고 있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을 통해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검진은 관내 12개 읍·면 경로당을 방문해 주 3회 선별검사, 주 2회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치매안심센터는 기억마중물 프로그램, 스마트 뇌총총 치매예방교실, 안심마을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억마중물 프로그램은 3~5월 말까지 경증 치매환자 중 국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 3회 총 36회(회기당 3시간) 동

안 △운동요법 △현실 인식훈련 △인지훈련 워크북 △웃음치료 △원예치료 △가족공예 등 비약물적 치료를 제공한다.

'스마트 뇌총총 프로그램'은 3~12월까지 75세 이상의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치매안심마을은 주 2회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전통시장 5곳 시설현대화 여수시, 쾌적한 환경 조성

여수시 전통시장 5곳이 전남도 주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2억 원을 확보했다.

여수시는 올해 총 2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편의시설과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서시장, 쌍봉시장, 여수수산시장, 서시장주변시장, 제일시장 등 5곳이다.

사업은 △서시장 노후 공용 전기설비 교체 △쌍봉시장 옥상주차장 방수공사 △여수수산시장 고객휴게실 보수 △서시장주변시장 아케이드 정비 △제일시장 노후 타일·콘크리트 정비 등이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도개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덕양시장 및 쌍봉시장 전기설비 보수공사, 해안로건어물상가시장 비가림시설 등 총 15건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